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협력과 시민 주도로
– 시빅해킹과 시민협력플랫폼

Parti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디지털 민주주의,
무엇을 상상하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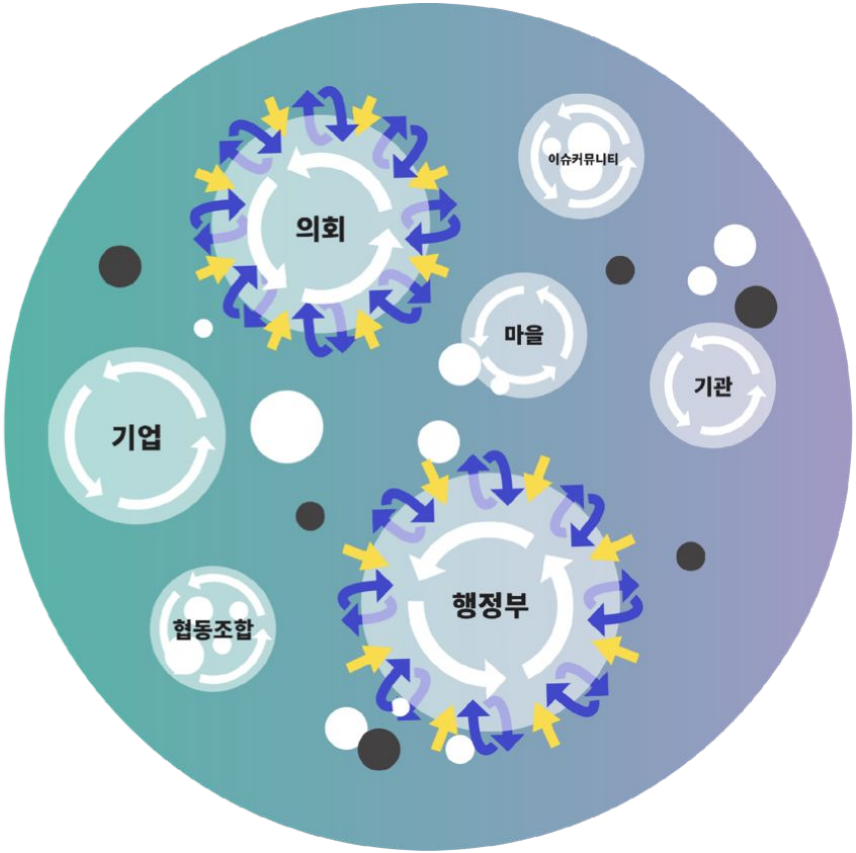
Parti

더 민주적인 세상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Democracy More & Better, Everyday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의 민주주의 – 다양한 주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생태계



우리의 현실 –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

불투명성
비개방성

민주적
소통의
부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

작동하지
않는
공론장

혐오와
인신공격

루머와
허위조작
정보

개인정보
침해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

빠띠의 민주주의 – 지향하는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
디지털 주권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공론장
거버넌스
이슈 커뮤니티
시민주도 캠페인

더 많은 민주주의
Democracy More

시민의 권리와 주권 확대
투명성과 개방성
공공성의 증대

독점과 엘리트주의의 극복

더 나은 민주주의
Democracy Better

안전과 자유,
신뢰와 협력의 기반 조성
숙의성과 창발성
협력적 거버넌스

혐오와 갈등, 형식적 민주주의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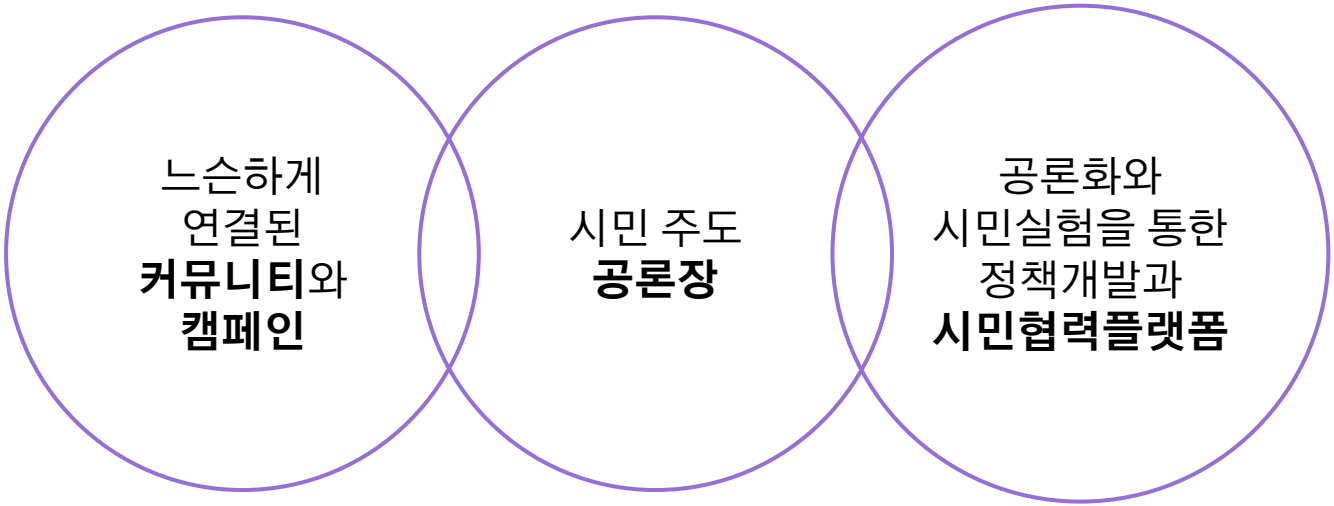
공익데이터
넷세이프티
팩트체킹
숙의와 토론
투표시스템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입법
시민조례
참여예산

일상의 민주주의 Everyday Democracy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공공재 운영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협력적이며,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

풀뿌리
지방자치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디지털 커먼즈

빠띠의 민주주의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민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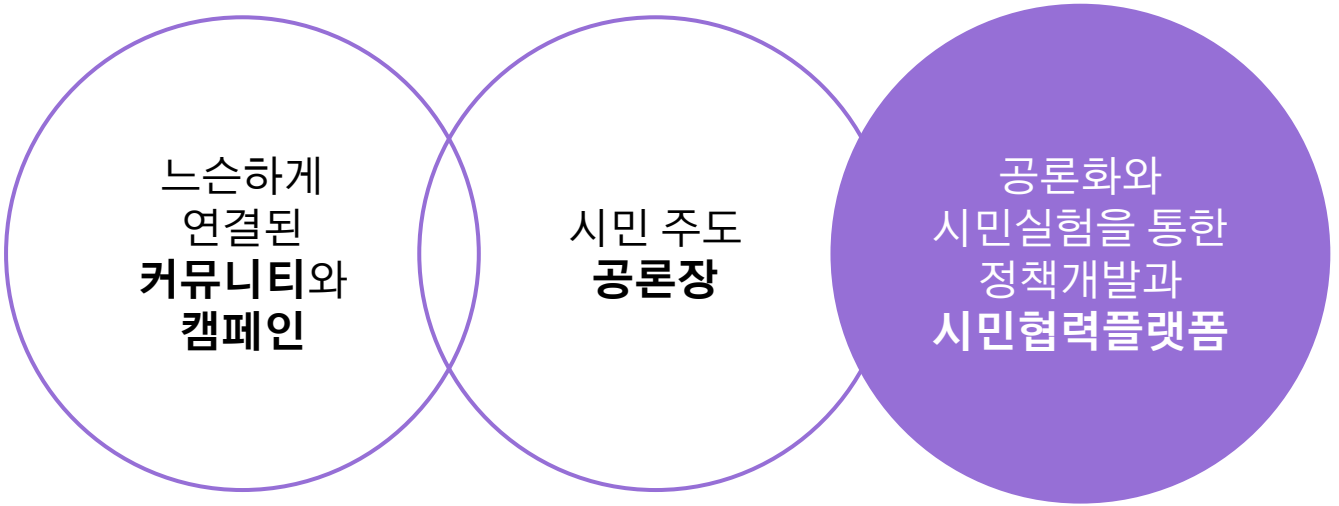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 공개와
팩트체크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시빅해킹**

빠띠의 민주주의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민의 경향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정보 공개와
팩트체크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시빅해킹**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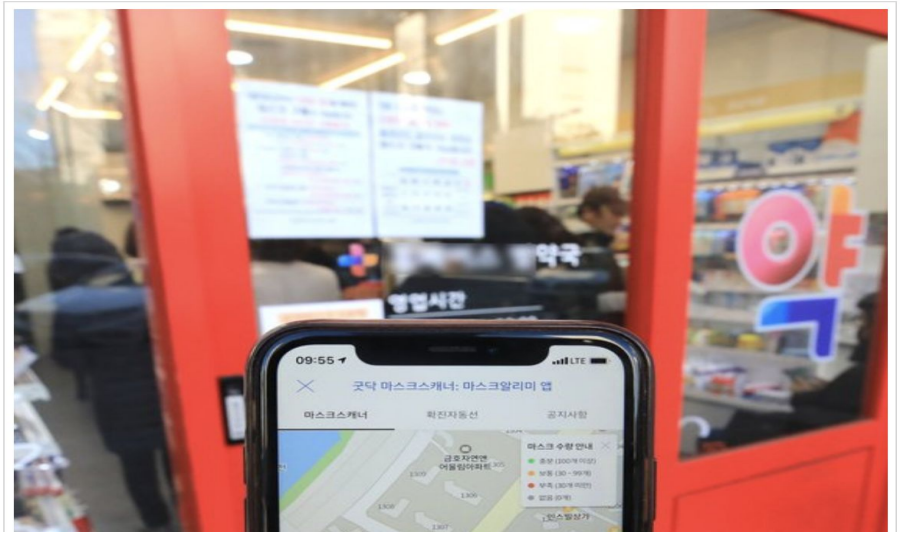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마스크앱' 덕분에 쏠림현상 해소…'완판약국' 늘었다

마스크 앱 없을땐 줄서도 못사는 경우 속출…마스크 남는 약국도 32%

마스크 재고정보 공개 후 '마스크 완판' 약국 67.9%서 86.4%로 증가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03-23 15:24 송고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882529

세계일보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011면 사회

마스크 재고 알림 앱도 '시민 집단지성'의 결실

약국 판매현황 등 각종 정보 알림
현직 개발자 모임서 정부에 제안
데이터 받아 30여개 무료 서비스
"집콕 중 의미 있는 일 하고파 시작"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개발자 진태양씨)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개발자 김모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는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15일 개발자들의 모임인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공적마스크 알림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30개가량 서비스되고 있다.

공동대응팀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현황 등을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들 서비스가 생겨났다. 서비스에 따라 마스크 수급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진료소 등 정부가 공개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공동대응팀은 시민이 직접 나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시빅 해킹' 활동을 하는 개발자들 모임에서 출발했다.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 대란' 등의 혼란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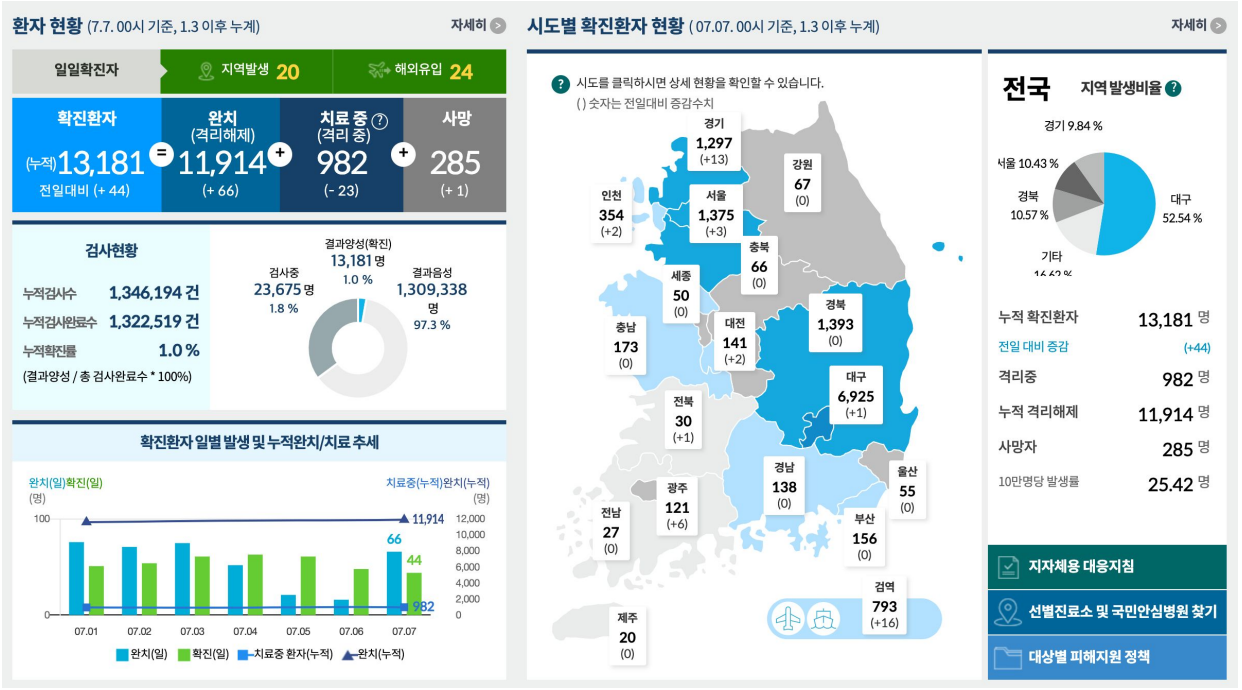
마스크 재고와 확진자 정보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 (corona.kor.band)를 만든 회사원 김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자제하고 통화만 하다가 의미있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나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여자친구는 디자인을 맡았다"면서 "방문자가 많으면 서버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시작한 만큼 끝까지 수익 없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맵' 등 코로나19 현황을 알려주는 사이트는 많지만 마스크 재고 사이트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논란이 적잖았던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민의 집단지성 발휘에 불을 댕긴 셈이다.

'웨어마스크'(where-mask.com·사진) 사이트를 만든 대학생 개발자 진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과도해서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업 개발자들은 정보에 특화된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편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부터 정확한 정보 전달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누군가 움직여야 기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1일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뒤 제공되는 정보를 보고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아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공동대응팀은 15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거쳐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 개방성



시각화 초점을 맞춘 데이터로 읽기 어려움
제공자에 따라 다른 데이터 속성과 업데이트 방식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요청 및 마스크 API 공개 영향



세계일보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011면 사회

마스크 재고 알림 앱도 '시민 집단지성'의 결실

약국 판매현황 등 각종 정보 알림
현직 개발자 모임서 정부에 제안
데이터 받아 30여개 무료 서비스
"집콕 중 의미있는 일 하고파 시작"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개발자 진태양씨)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개발자 김모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는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15일 개발자들의 모임인 '코로나19 공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공적마스크 알림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30개가량 서비스되고 있다.

공동대응팀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현황 등을 오픈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들 서비스가 생겨났다. 서비스에 따라 마스크 수급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진료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공동대응팀은 시민이 직접 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시빅해킹' 활동을 하는 개발자들이 모여 출발했다.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 대란'이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냈다.

영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와 확진자 정보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 (corona.kor.band)를 만든 회사원 김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자제하던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민의 집단지성 발휘에 불을 댕긴 셈이다.

'웨어 마스크'(where-mask.com·사진) 사이트를 만든 대학생 개발자 진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과도해서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업 개발자들은 정보에 특화된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편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부터 정확한 정보 전달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편집 토론 문서 역사

분류: 공적마스크이야기

목차 [숨기기]

1 배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쉽고, 일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 [편집]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제안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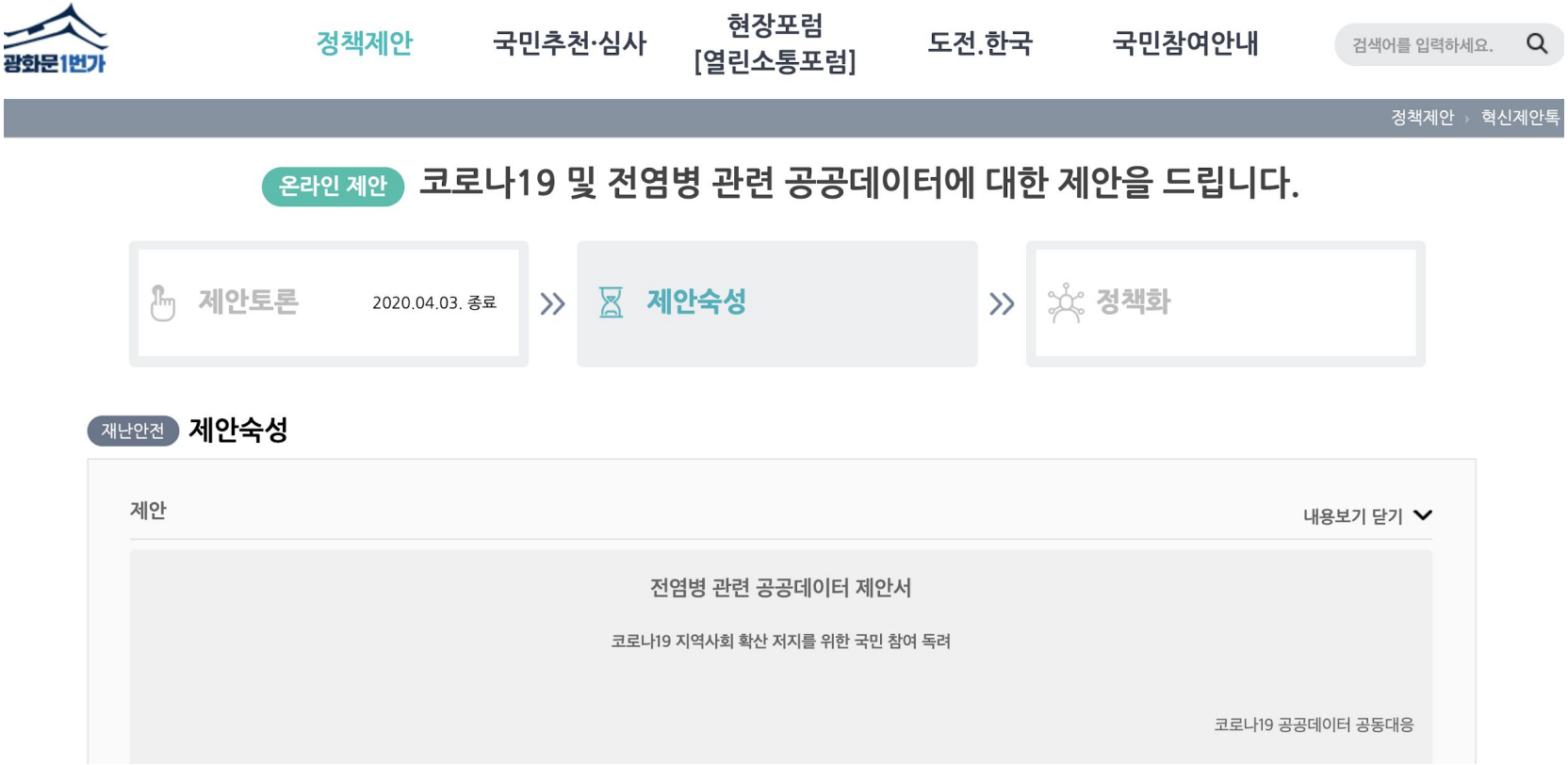
파트너 시빅해커들, 정부 부처, 기업 관계자
기간 2020.02-2020.03
링크 https://codefor.kr/wiki/코로나19_공공데이터 공동대응

빠띠 공익데이터팀은 씨빅해커들에게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함께 필요한 데이터셋 공개, 일정한 형식과 속성을 가진 데이터, 제공주기를 갖춰서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했고, 많은 시민개발자들(씨빅해커)은 어렵게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코로나19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은 광화문 1번가 제안, 정부 회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정부는 요청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고, 당시 공적마스크 재고 API 공개와 씨빅해커들의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통에 있어 함께 했습니다.

Toolkit 데이터 액티비스트 툴킷
Platform 코드포코리아 (Code for Korea)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국민추천·심사
현장포럼
[열린소통포럼]
도전.한국
국민참여안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정책제안 › 혁신제안톡
온라인 제안
코로나19 및 전염병 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토론
2020.04.03. 종료
제안숙성
정책화
재난안전
제안숙성
제안
내용보기 닫기
전염병 관련 공공데이터 제안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국민 참여 독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감염병 관련 공공데이터 제안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저지를 위한 국민 참여 독려

1. 제안 배경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일상 속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각자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민간기업 또는 단체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시빅해커들이 과거 메르스 사태를 전례로 민간적 차원에서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데이터가 파편화 되어있어 국민들의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함께 감염병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염병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핵심 가치

- **신속성과 선제성**

  전염병 상황과 같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의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과 악의적인 유포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로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주기(6시간, 1일)를 가지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신뢰성과 개인 정보 보호**

  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최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지양하여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과 재생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쉽도록 접근성이 높고, 가공이 편리한 형식으로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OpenAPI를 기본으로 제공하되, 일반인의 정보 조회가 쉽도록 엑셀 파일 형식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요청 데이터 상세 설명

- 종합 통계
  - 감염병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 기준일시, 분류별 환자 통계(양성, 음성, 검사중, 접촉, 퇴원 등), 지역별 환자 통계
- 확진자 목록
  - 확진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
  -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연령대, 상태, 격리장소, 접촉자 수, 확진일자, 완치일자
- 방역대상 장소
  - 접촉자,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자료
  - 확진자번호, 방문일, 시간(IN/OUT 정밀), 도로명 주소, 후속조치(방역완료, 폐쇄조치 등)
- 의심 환자 목록
  - 의심환자와 검진 결과의 파악을 위한 자료
  -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연령대, 상태, 접촉장소, 접촉자 수
- 선별 진료소 목록
  - 국민들의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자료
  - 구분, 지역, 명칭, 도로명 주소, 수용 인원, 검체 채취 가능, 운영 시간, 연락처
- 방호 용구 배포처
  - 구분, 지역, 명칭, 도로명 주소, 제공 용구 목록 및 수량, 재고, 운영 시간, 연락처
  - 기존 병의원 정보와 연계 가능 여부 검토

4. 데이터 작성 정책 제안

1) 현재 질본에서 공개하는 시도별 발생동향 데이터가 최종 데이터만 존재합니다. 시계열 차트를 그리기 위해 일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3

2) 질본 마이크로사이트의 시도별 발생 동향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주기적이지 않아 하루 이상 변경되지 않은 적이 발생합니다. 3월 2일 0시 데이터 부터는 제공되던 시도별 '격리해제', '검사 중', '결과음성' 컬럼을 더이상 제공하고 있지 있어, 더이상 시도별 증/감을 알 수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데이터 제공되길 바랍니다.

3) 3월 2일 보도 자료 부터 격리해제된 사람의 카운트만 제공하고 정보가 성별/나이/지역 등 아무런 정보도 제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제공되길 바랍니다.

4) 기존 확진자에 대한 정보 수정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에 정보 생성 일시와 수정 일시가 함께 반영하고, 기존 정보 변동 내역을 따로 통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포멧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업로드 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이 부분 질본에서 표준 보고 형식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가이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 송북2: 2.17.(월) 14:00~15:00 시장
ex) 포항2: 2020-02-19 10:50-11:40 상호명 (도로명주소)

6) 제공되는 데이터가 일관적으로 관리되길 바랍니다. 제공하는 데이터도 일관적이고, 제공 주기나 집계 시점, 기준 등도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5.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 코로나19 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등 등 정부와 국민 모두의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오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준비하는 지침이나 규정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를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난사태 해결에 함께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시민들의 두려움과 패닉, 불안을 줄이고 긴급재난상황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 명칭	목적	데이터 속성
주요 통계	코로나19 감염 대응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통계자료	검진자수, 검진완료, 자가격리, 의사환자(유증상자), 확진자, 완치자 등 지역별, 시간별 통계
확진자 명단	통합적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작성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출생년도, 감염경로-접촉확진자, 확진일자, 격리여부(격리중, 격리해제), 격리장소, 격리장소 세부정보(위도,경도),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접촉자수, 완치일자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와 접촉한 자, 의심환자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	확진자번호, 방문일, 위치정보, 세부 주소(위도, 경도), 방문시각 (In-out)
의심환자 명단	통합적으로 의심환자와 검진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	번호, 지역, 성별, 국적, 출생년도, 접촉경로, 접촉 확진자, 검진일자, 검진여부, 격리여부(격리중, 격리해제), 격리장소, 격리장소 세부정보,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접촉자수
	작성	
선별진료소	확진자, 의심환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대응하기 위한 방편	기준시각, 지역, 보건소주소, 보건소연락처 선별진료소명, 선별진료소세부주소, 전화번호, 총 베드 수, 현재 수용상황
폐쇄 방역 장소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장소이기에 장소별 폐쇄 방역 여부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	기준시각, 지역, 장소명, 세부주소(위도, 경도), 전화번호, 폐쇄일자, 방역 일자, 재개 여부, 사유, 방문확진자
마스크 배포	마스크 배포에 있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기준시각, 지역, 배포장소, 장소 세부정보(위도, 경도), 연락처, 일일 재고, 현 재고

A	B	C	D	E	F	G	H	I	J	K
번호(질병관리본부 기준 번호)	지역	거주지	성별	국적	출생년도	감염경로	여행력	접촉 확진자	확진일자	격리여부(격리중, 격리해제)
34	거창	00구	여	한국	2000	경북안동확진자 384	00국	384	2월 26일	격리중
938	서울	강동구	남	한국	1968				2월25일	격리중

1 확진자 명단 | 확진자 이동경로 | 의심환자 명단 | 선별진료소 | 폐쇄 방역 장소 | 마스크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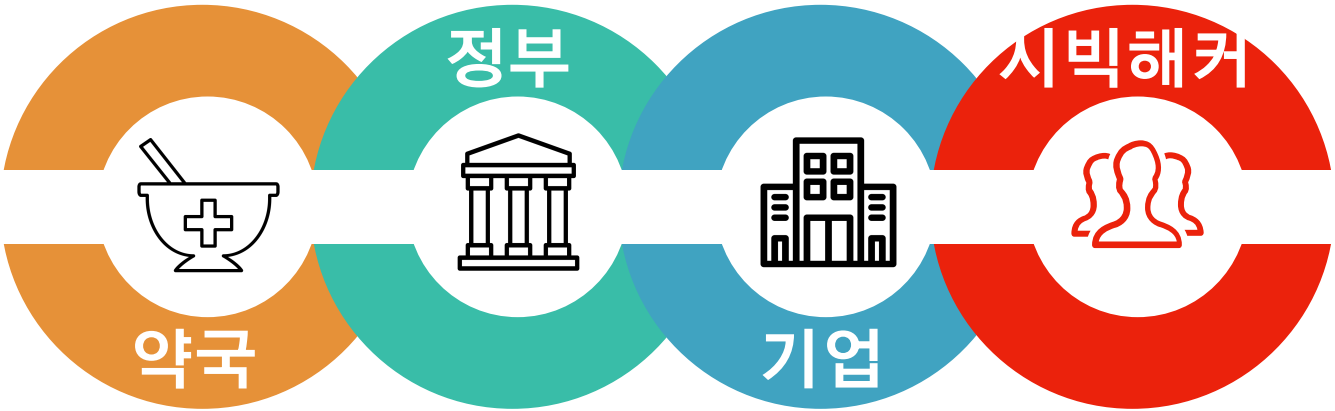
“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datapublic.kr) / 권오현 / 김성준 / 박지환 / 황서원 / 황은미 / 이준수(adrinerDP)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wuhanvirus.kr) / 권영재 / 주은진 / 코로나 인포(coronas.info) / 강희원 / 정도현 / 산솝 (winty1230) / 유바이러스(uvirus.kr) / 강창완 / 문정민 / 김슬 / 조용현 / 장슬기 /이성규(Mediogotosa) /이상근(테크스페이스)

정부와 기업, 시민의 역할 분담과 협력

데이터 신뢰성
재고 API 제공

빠른 개발과
대규모 확산



마스크 재고 입력
실시간 데이터

API 서버,앱마켓 지원
안정된 서버



판데믹 극복의 열쇠 – 적극적인 민관협력과 시민의 활동 확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비롯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 증대 효과

시빅해커와 정부, 기업 – 민관협력의 한주간

2/23 감염병 심각경보	**2/24** 공동대응 제안 1차	**2/25** 제안서 작성	**2/26** 제안서 작성 전달	**2/27** 공동대응 제안 2차	**2/29** 공공데이터 제안서 전달	**2/29**
3/1(일) 제안서 전달	**3/2(월)** 제안서 전달	**3/3(화)** 광화문 1번가 게시	**3/4(수)** API 개방 계획 확인	**3/5 (목)** 공적마스크 정책 발표	**3/6(금)** API와 앱 동시 개발 시작	**3/7(토)** API 피드백 개발가이드 서비스개발
3/8 개발 완료 배포 대기	**3/9** 보완개발 배포 대기	**3/10** API 및 앱 개발 공표	**3/11** 앱 동시출시	**3/12** API 서비스 개선	**3/13** API 서비스 개선	**3/14** API 서비스 개선

CODE FOR KOREA
codefor.kr

HAPPY CIVIC HACKING
WITH CODE FOR KOREA

누구나
시빅해킹 활동을
함께 하는 네트워크

Happy Civic Hacking



홈페이지 : https://codefor.kr 슬랙 초대 : http://bit.ly/codeforkorea

개인안심번호

MT 머니투데이

"코로나 명부 봤는데 사귈래요?"...개인안심번호로 막는다

입력 2021.02.18. 오후 3:54 · 수정 2021.02.18. 오후 3:54





개인안심번호

한겨레 hani.co.kr

PICK

안심번호, 마스크 앱…시민 해커, 사회 고민 해결 주역으로

입력 2021.03.08. 오전 5:02 • 수정 2021.03.30. 오후 3:52

연합뉴스

수기명부 개인정보 유출방지 '개인안심번호' 시민들이 만들었다

입력 2021.02.18. 오후 3:28 • 수정 2021.02.18. 오후 3:40

[기획]수기명부 전화번호 대신 '안심번호'...귀찮은 '070 스팸 전화' 막아준 7인방

발행일 : 2021.03.15

"2021 스마트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이노베이션" 6월 3일 온라인 개최

네이버·카카오·패스 통해 쉽게 발급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서 개발
시빅해커 권오현·고3학생 손석민 등
시민개발자, 프로그램 핵심 역할



개인안심번호 만든 '시벤저스 7인' 실명공개 …"기꺼이 나선 시민들 기억해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18 15:57 수정 2021.02.18 16:01:5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 재산 공개 데이터 공개 제안

제안 내용

1.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CSV 등의 데이터 형식으로 함께 제공해 주세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CSV같은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면, 국민 각자가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즉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2.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제정하고 지켜주세요.

다양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정보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개될 것에 대비하여 대한민국 정부만의 공직자 재산 정보 공개를 위한 데이터 표준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표준을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데이터를 생성할 때 따르게 함으로써, 여러 곳에서 생산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쉽게 통합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서식들도 이러한 데이터표준에 따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앙부처와 시도 등 각종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해 주세요.

현재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는 공직자 재산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세요. 특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데이터 포털인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

“공직자 재산 공개, 이미지 아닌 데이터 파일로 줘야 맞다”

입력 2021.03.31. 오전 10:01 · 수정 2021.03.31. 오전 10:12

6 3 가가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통해 제안
데이터 형식 표준화·공개 창구 일원화도
“국민 접근성 향상·부패 사례 발굴 효과”

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13 11:44:24

Par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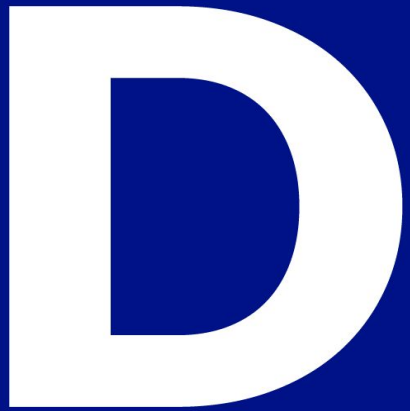
더 민주적인 세상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Democracy More & Better, Everyday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공익데이터 액티비즘

Data for Good



공익데이터 기반
데이터 액티비즘으로
더 투명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Parti Democracy More

포트폴리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개요청 및 마스크 API 공개 영향


세계일보

2020년 03월 16일 월요일 011면 사회

마스크 재고 알림 앱도 '시민 집단지성'의 결실

약국 판매현황 등 각종 정보 알림
현직 개발자 모임서 정부에 제안
데이터 받아 30여개 무료 서비스
"집콕 중 의미있는 일 하고파 시작"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개발자 진태양씨)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개발자 김모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에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는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15일 개발자들의 모임인 '코로나19 공

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하 공동대응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공적마스크 알림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이 30개가량 서비스되고 있다.

공동대응팀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제안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현황 등을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이들 서비스가 생겨났다. 서비스에 따라 마스크 수급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선별진료소 등 개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

공동대응팀은 시민이 직접 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해킹' 활동을 하는 개발자들이 출발했다. 현재 고등학생, 대학생 사원 등 다양한 사람이 참가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 대란' 속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가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냈

영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와 확진자 정보 등을 알려주는 사이트 (corona.kor.band)를 만든 회사원 김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자제하

던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민의 집단지성 발휘에 불을 댕긴 셈이다.

'웨어 마스크'(where-mask.com·사진) 사이트를 만든 대학생 개발자 진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과도해서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업 개발자들은 정보에 특화된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문제에 대응하기 편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부터 정확한 정보 전달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1 배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쉽고, 일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

파트너 시빅해커들, 정부 부처, 기업 관계자
기간 2020.02-2020.03
링크 https://codefor.kr/wiki/코로나19_공공데이터 공동대응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제안 및 대응

빠띠 공익데이터팀은 씨빅해커들에게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함께 필요한 데이터셋 공개, 일정한 형식과 속성을 가진 데이터, 제공주기를 갖춰서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형태의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했고, 많은 시민개발자들(씨빅해커)은 어렵게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코로나19 관련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은 광화문 1번가 제안, 정부 회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정부는 요청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고, 당시 공적마스크 재고 API 공개와 씨빅해커들의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통에 있어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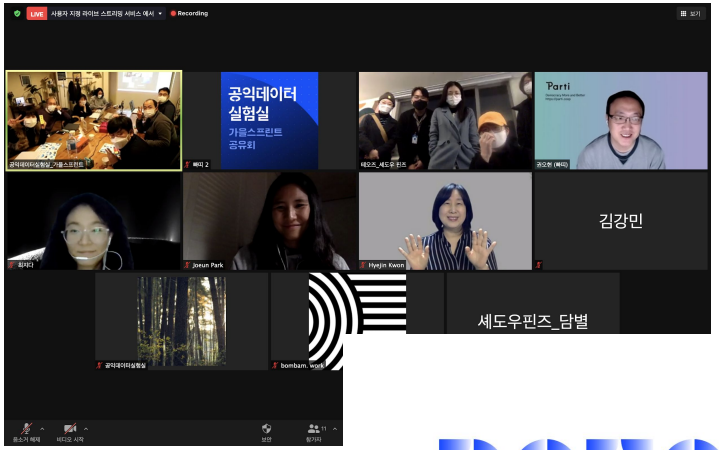
Toolkit 데이터 액티비스트 툴킷
Platform 코드포코리아 (Code for Korea)

자세히 보기

포트폴리오

서울시 공유기업촉진사업

시민주도 공익데이터 활동 진행 및 공익데이터 아카이브



공익데이터 실험실

파트너 서울특별시
기간 2020.05-2020.11
링크 https://datapublic.kr/archives/36

공익데이터 실험실

공익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데이터 활동가를 양성하고 데이터 활동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궁금증, 사회문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데이터 전문가의 기여로 자문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공익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찾고 활용해 데이터활동이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데이터와 결과물이 공유합니다.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프린트로 장애아동 놀이터, 쓰레기, 무료급식, 스토킹 법안 4개 도메인에 관한 데이터활동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6곳와 함께 데이터활동 아카이브를 했습니다. 데이터활동 기록은 데이터퍼블릭 아카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oolkit 데이터 액티비스트 툴킷
Platform 데이터퍼블릭

자세히 보기

국내 장애아동의 차별 없는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그린 북 Green Book
프로젝트

내가 버린 쓰레기 어디로 갈까
프로젝트

크롤 앤 스티치
Crawl and Stitch
프로젝트

21년간
유령처럼 떠돌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로
한 걸음 더

이웃을 지켜내는 끼니를 찾아가는
WAF We are full when we are full
프로젝트

내가 버린쓰레기, 어디로 갈까?

들어가기 전

뉴스에서 본 쓰레기산, 바다에 두둥실 떠다니는 플라스틱섬들을 보며 내가 버린 쓰레기들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늘 걱정했다. 쓰레기를 아예 안 버릴 수 있다면 최고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들. 그 쓰레기에 붙은 라벨을 떼고, 물질별로 분리배출하면서 마음 속으로 기도한다.
'부디 딴 길로 새지 말고, 잘 처리되어서 지구에 해끼치지 말고 떠나렴'.

시민들은 각자 사는 지역, 집의 형태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렇게 내 놓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끝나지만 쓰레기는 그 순간부터 쓰레기로서 삶을 시작한다. 쓰레기의 삶이 시작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법 길고 또 비싸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의 삶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닌 나의 쓰레기. 그 쓰레기는 오늘 새벽 누구에게 들려 어디로 갔을까? 끔찍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을까? 이 프로젝트는 내가 버린 종량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개인적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 한 명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본 결과물이다. 때문에 100%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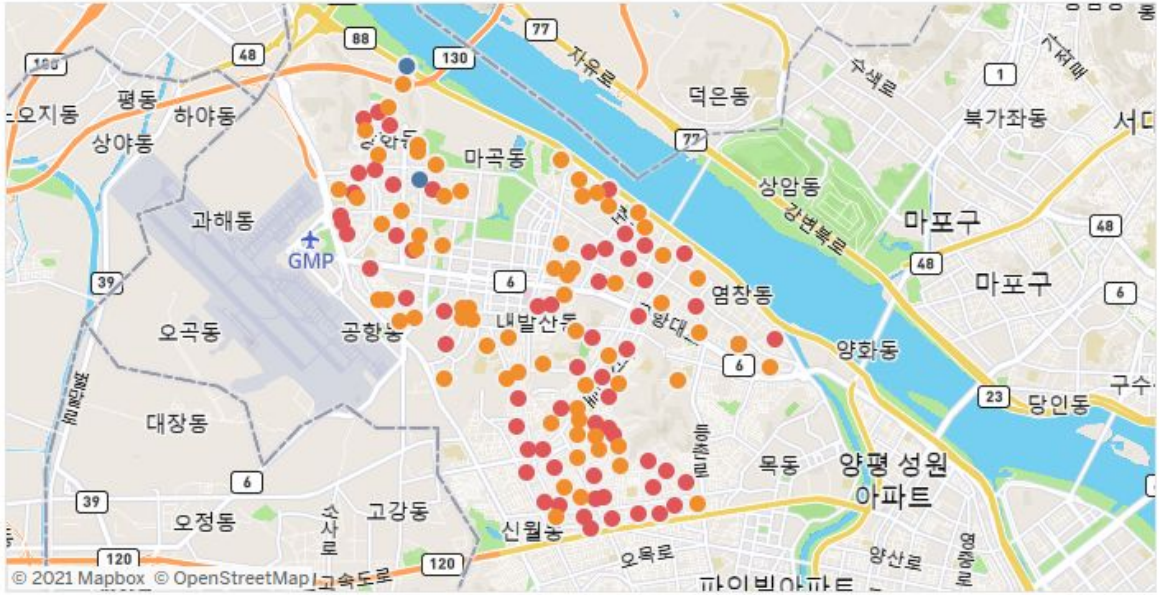
본 리포트는 여러분의 참여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의견 또는 첨부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해당 문서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데이터퍼블릭 소식
리포트

물론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들의 효용성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들을 1~3등급으로 분류했지만 1등급이라고 해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슈레이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강서구에 공공제안서를 제출하고, 무장애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구의원 및 구청,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의 담당 주무관과 구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통합놀이터 추진을 위해 민관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놀이 시설들의 다양한 환경적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강서구 장애아동친화 놀이터 지도



지도 **우측 하단에 전체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큰 화면에서 편안하게 놀이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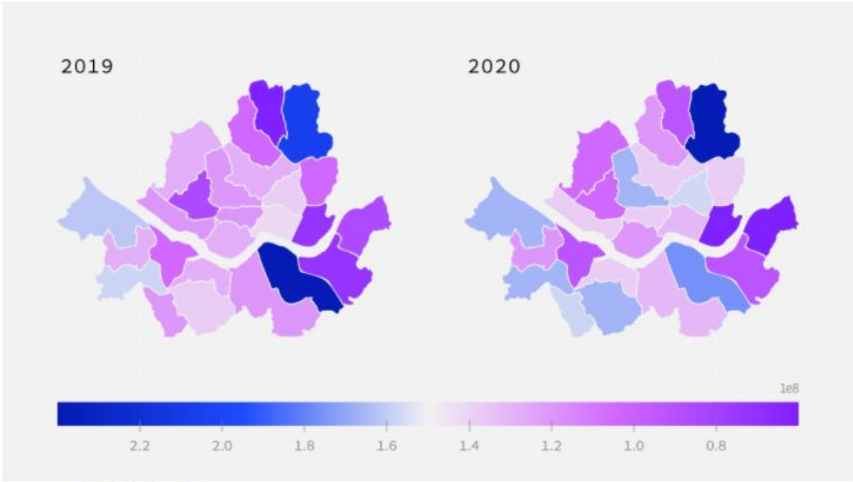
#1 서울시 내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시설

> *"2019~2020년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현황>을 서울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PDF로 제공된 문서를 엑셀로 변환하고, bizGIS의 GeocodingTool을 이용해 주소를 좌표로 변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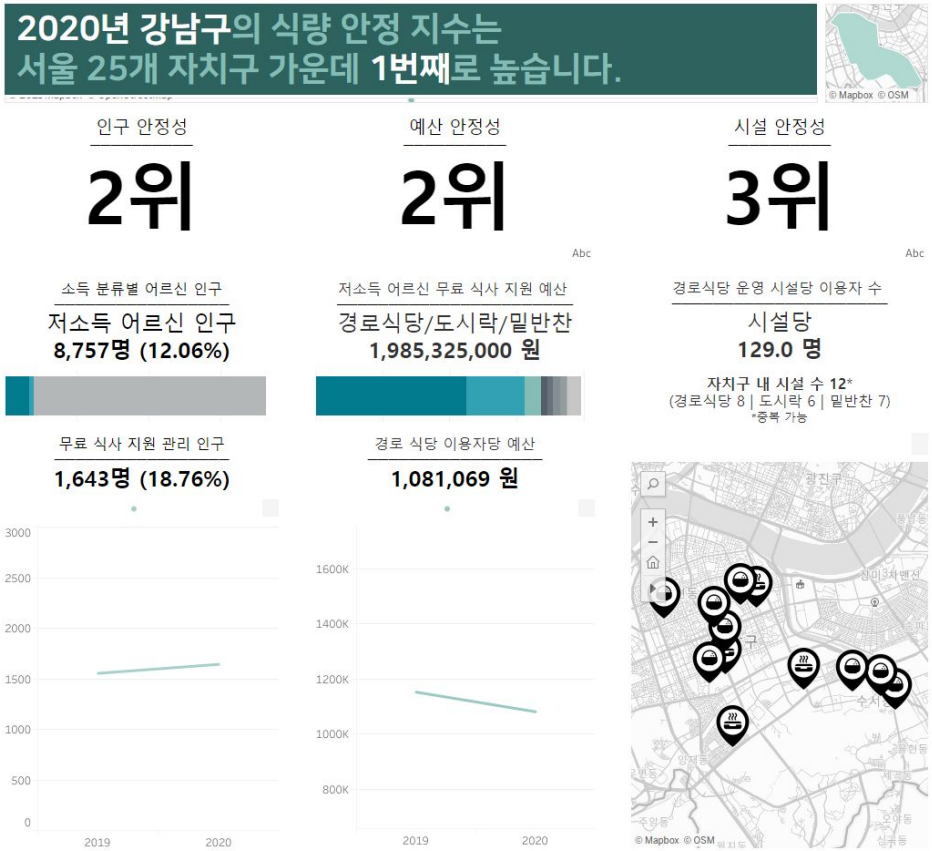
서울시 내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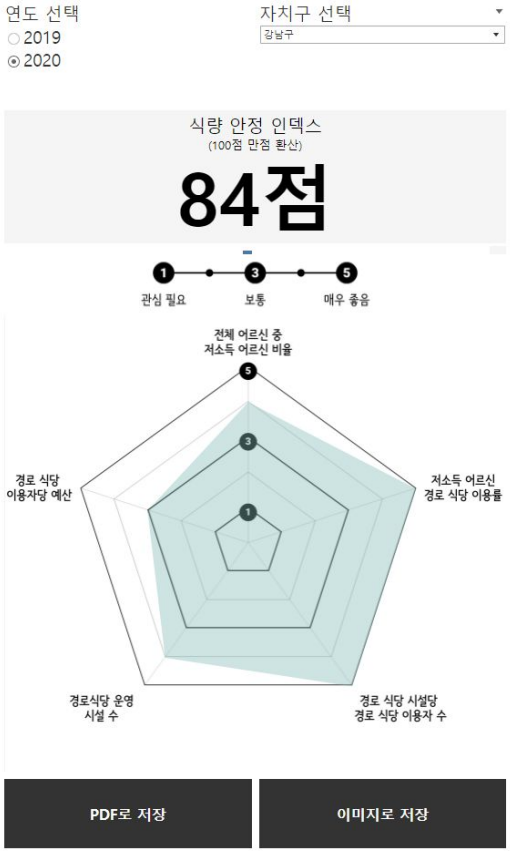
#2 무료급식시설별 예산



무료급식시설별 예산

> 👀 *"코로나 19 전후 지역간 변화가 있어요. 2019년에는 강남구가 시설당 약 2억 3천 5백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020년은 노원구가 약 2억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 서울시 전체 평균 약 1억 3천만원)"*


2020년 강남구의 식량 안정 지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번째로 높습니다.
© Mapbox © OSM
인구 안정성
2위
예산 안정성
2위
시설 안정성
3위
소득 분류별 어르신 인구
저소득 어르신 인구
8,757명 (12.06%)
무료 식사 지원 관리 인구
1,643명 (18.76%)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9
2020
저소득 어르신 무료 식사 지원 예산
경로식당/도시락/밑반찬
1,985,325,000 원
경로 식당 이용자당 예산
1,081,069 원
1600K
1400K
1200K
1000K
800K
2019
2020
경로식당 운영 시설당 이용자 수
시설당
129.0 명
자치구 내 시설 수 12*
(경로식당 8 | 도시락 6 | 밑반찬 7)
*중복 가능
© Mapbox © OSM


연도 선택
2019
2020
자치구 선택
강남구
식량 안정 인덱스
(100점 만점 환산)
84점
관심 필요
보통
매우 좋음
전체 어르신 중
저소득 어르신 비율
저소득 어르신
경로 식당 이용률
경로 식당 시설당
경로 식당 이용자 수
경로식당 운영
시설 수
경로 식당
이용자당 예산
PDF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



[크롤 앤 스티치] 데이터 공개

세도우 핀즈는 21년간 국회를 유령처럼 떠돌던 스토킹 처벌법의 데이터를 추적하고, 한국 언론사가 이를 다루는 문제적 태도를 비평하기위해 크롤 앤 스티치(Crawl & Stitch)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 | 크롤 앤 스티치는 무엇인가요?

웹 크롤링 기술 기반으로 온라인 뉴스 페이지를 **긁어 모아서**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촘촘하게** 의미를 연결시키고 재맥락화한다는 뜻의 프로젝트명입니다.

2 | 이 프로젝트는 왜 시작했나요?

🧐 문제 진단

1. 미국 등의 해외와 달리 한국은 스토킹을 단일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법/수사 시스템에서, 스토킹 범죄는 **벌금 8~10만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는 **지속적 괴롭힘** 이란 죄명의 **경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9년, 스토킹 법안 발의된지 8012일째**~~

가결된지 38일째



통과 못한 법안이 국회를 떠돌던 동안
스토킹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터퍼블릭 소식 데이터공개
입법독려캠페인사이트

허위조작정보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체크하는 ‘팩트체크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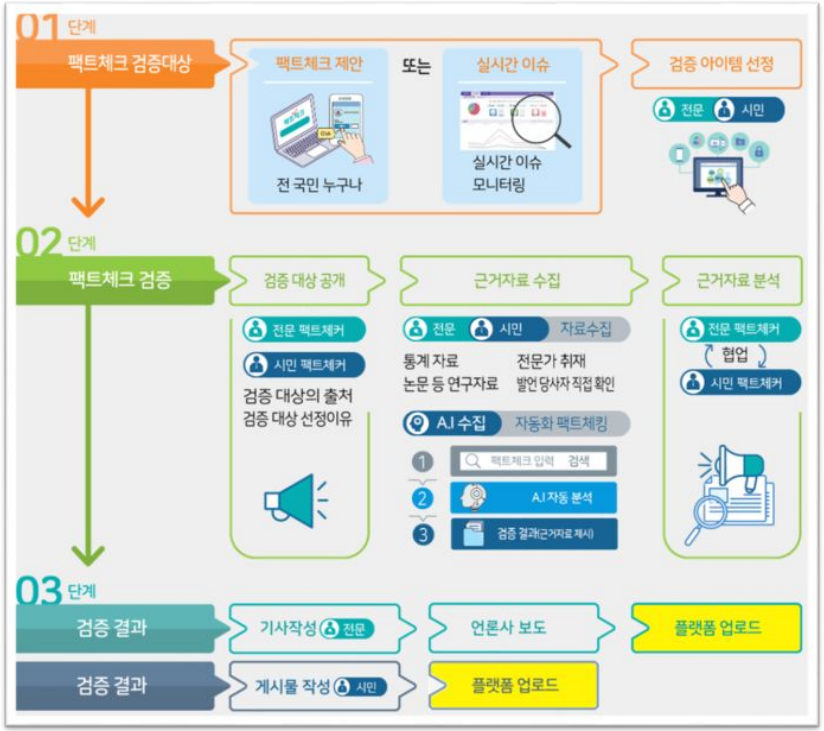
시민 주도 팩트체크플랫폼 ‘팩트체크넷’

https://factcheckers.or.kr





시민 주도 팩트체크플랫폼 ‘팩트체크넷’



시민 주도 팩트체크플랫폼 ‘팩트체크넷’

뉴스데스크 전준홍

찍자마자 전 세계로 수출?…부끄러운 'K-신문' 열풍

입력 2021-04-08 20:21 | 수정 2021-05-04 14:17



검증완료 한국 신문지, 태국 이케아 매장에서 포장지로 사용?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콕 이케아 포장지로 쓰이는 한국신문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자유롭게나는새 댓글 3 좋아요 1

방콕 이케아에 한국신문 비치.. '부수 부풀리기'의 증거?

전준홍 전문팩트체커 MBC 2021.04.09

방콕 이케아에 한국신문 비치.. '부수 부풀리기'의 증거?

이케아 한국신문 K신문 포장지 ABC 부수

검증 대상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태국 방콕의 이케아 매장 포장대에 한국신문이 대거 비치돼 있다는 사진이 뜨면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됨. 국내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검증하려 함

선정 이유

최근 해외에서 한국 신문이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험담과 인증사진, 게시물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 국내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태국 방콕의 이케아 매장 포장대에 한국신문이 대거 비치돼 있다는 사진이 뜨면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됨. 국내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검증하려 함

선정 이유

최근 해외에서 한국 신문이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경험담과 인증사진, 게시물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 국내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관련 제안

한국 신문지, 태국 이케아 매장에서 포장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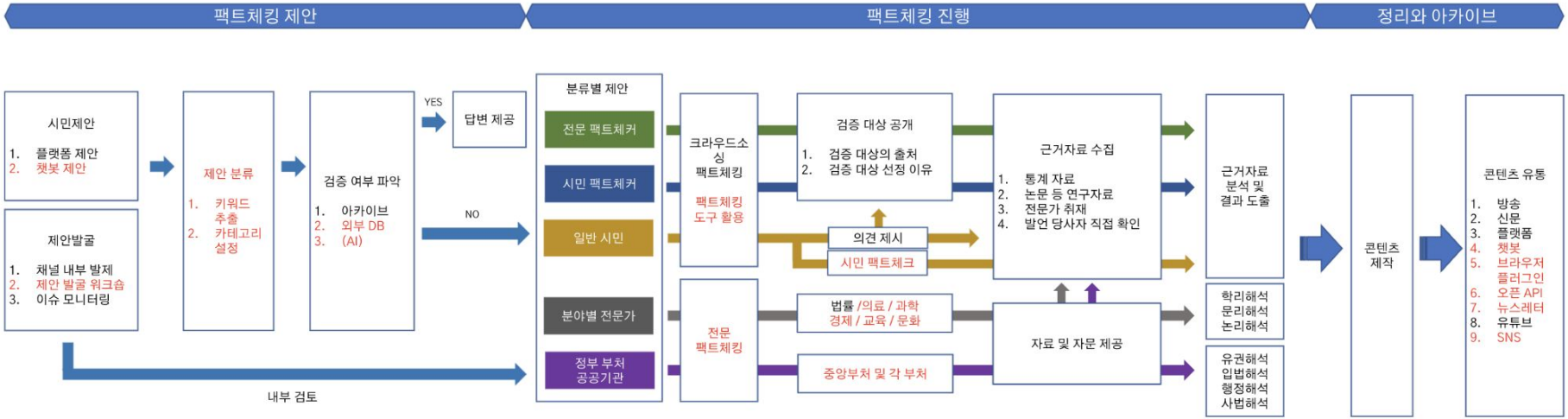
판정 결과

최근 한국 신문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신문 부수 부풀리기의 영향으로 확인 됨



시민 주도 팩트체크플랫폼 '팩트체크넷'

팩트체크넷 프로세스 (붉은색 2021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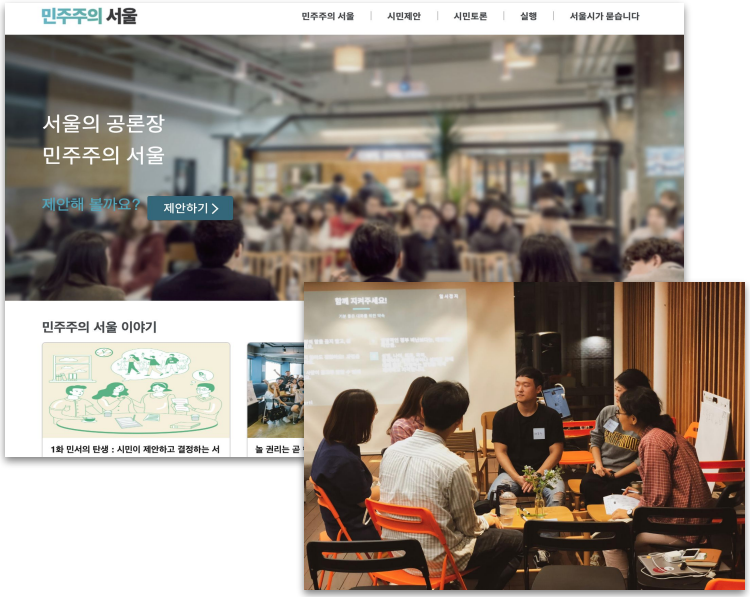


시민제안플랫폼에서시민협력플랫폼으로
민주주의서울과 빠띠 데모스X, 믹스

포트폴리오

민주주의 서울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의 민주주의 공론장



파트너 서울특별시
기간 2017.10-2019. 12
링크 http://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 '서울의 공론장'

2017년~2019년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주의 서울'의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공론장 운영 모델을 확립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워크숍, 찾아가는 시민제안, 열린토론회 등 공론장 운영 방식, 장소, 기간 등을 주제와 대상에 맞게 기획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참여의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안, 의제 선정, 토론의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Award (앤어워드)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부문 거번먼트 분야, 2019년 iF디자인어워드 서비스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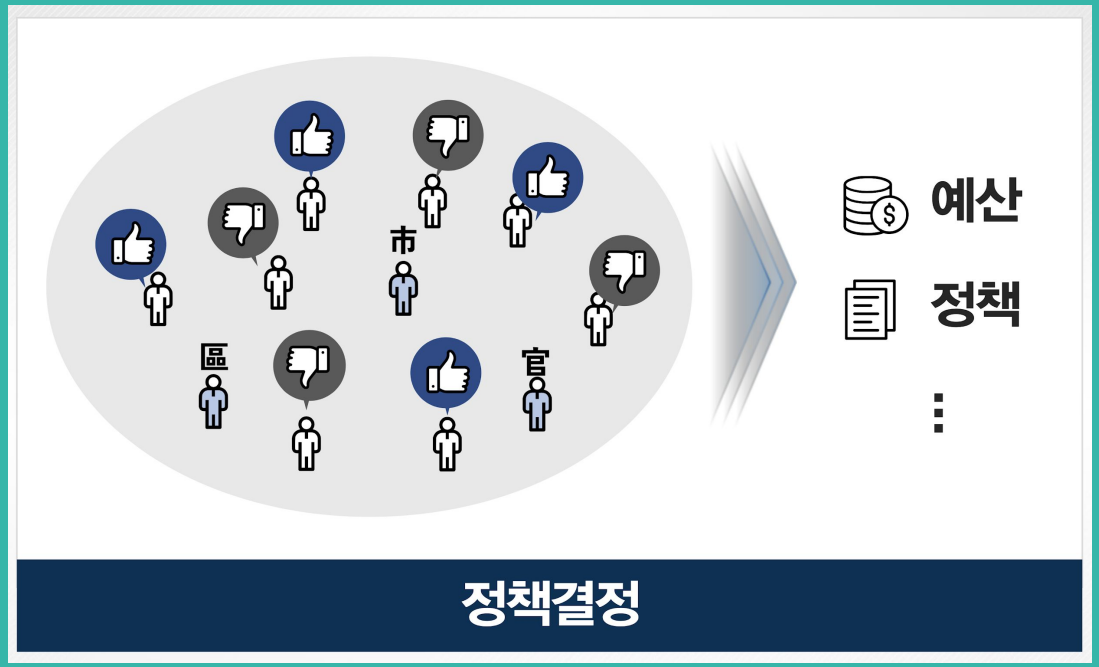
Toolkit 시민제안 워크숍, 시민참여 공론장, 실험장, 찾아가는 시민제안, 공론 기획 및 선정, 타운홀 미팅

Platform 데모스X

더 자세하게 보기

민주주의 서울 – 추진 전략

Democracy Seoul - democracy.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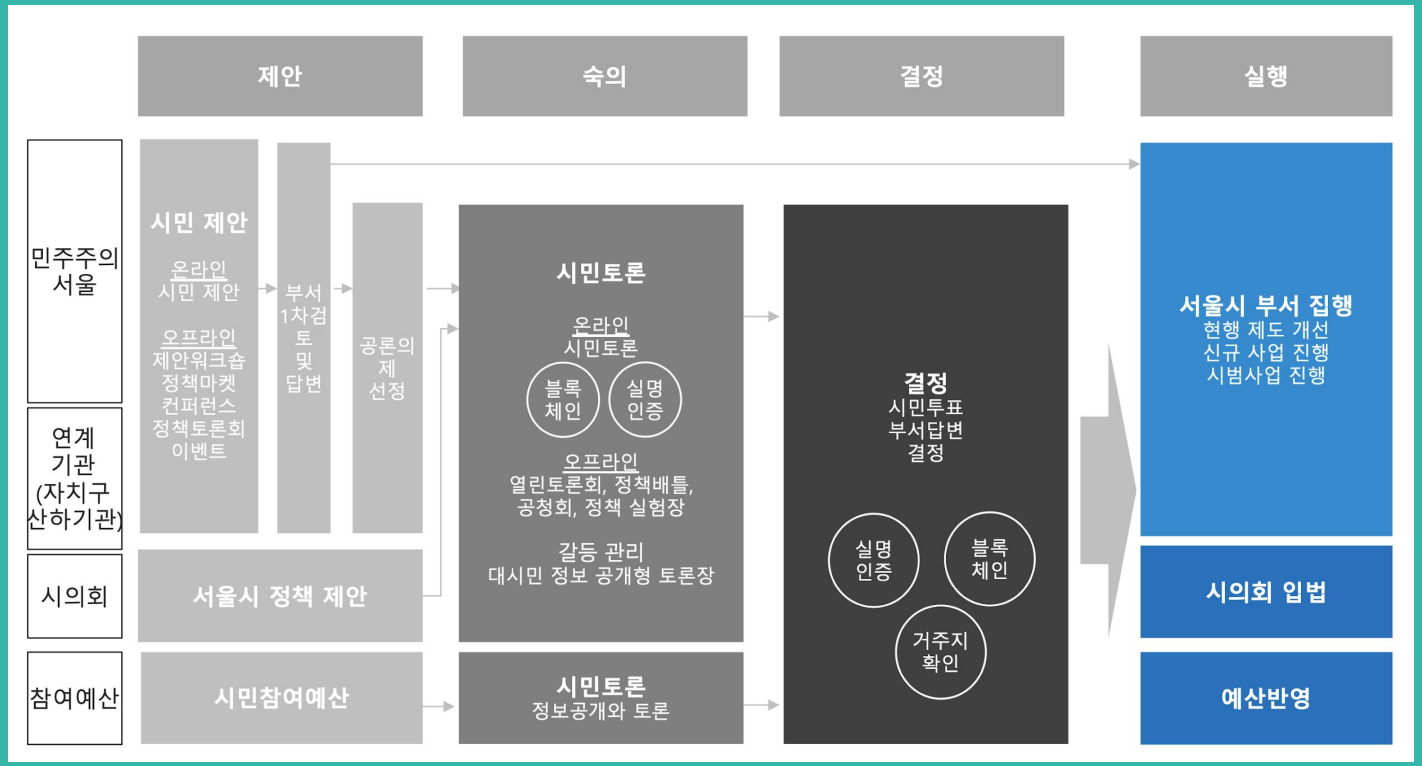


민주주의 서울 – 플랫폼 발전 전략



민주주의 서울 – 플랫폼 발전 전략

Democracy Seoul - 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 – 플랫폼 발전 전략

Democracy Seoul - 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 – 민주주의 특별시 서울

Democracy Seoul - democracy.seoul.go.kr

마포구에 사는
A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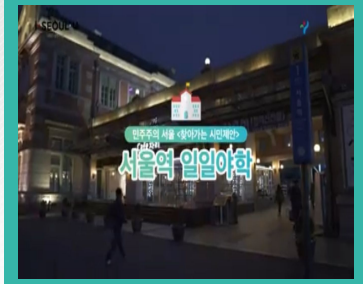
00동 재활용 집하장 이전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B씨

서울-경기도 광역버스 요금인상

서울에서 일하는 외국인
Mr.C

서울시 외국인 투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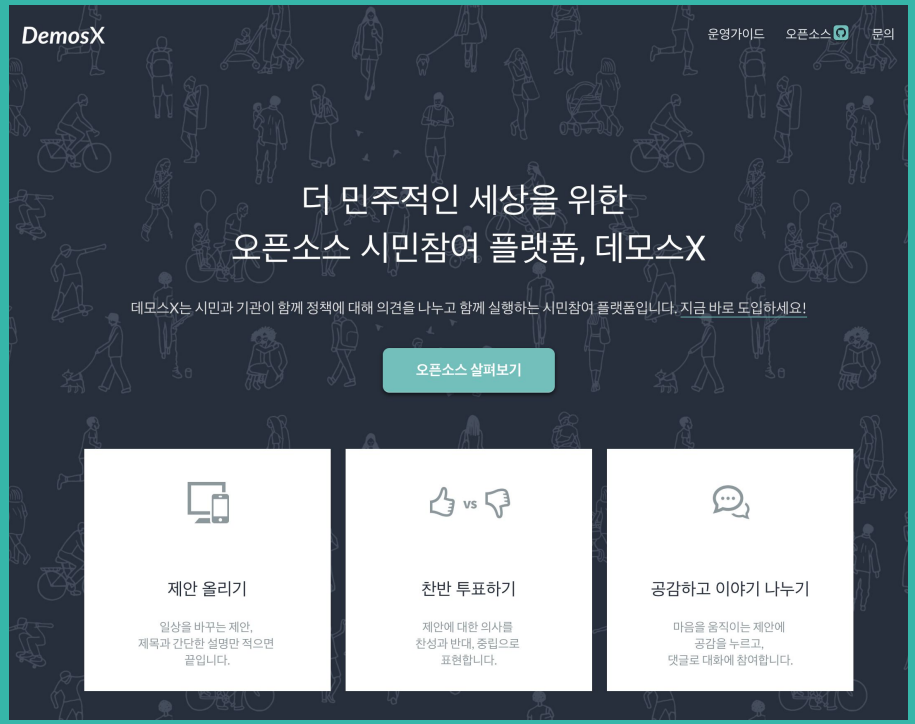






민주주의 서울 – 오픈소스와 오픈가이드 개발 및 보급

demosx - https://demosx.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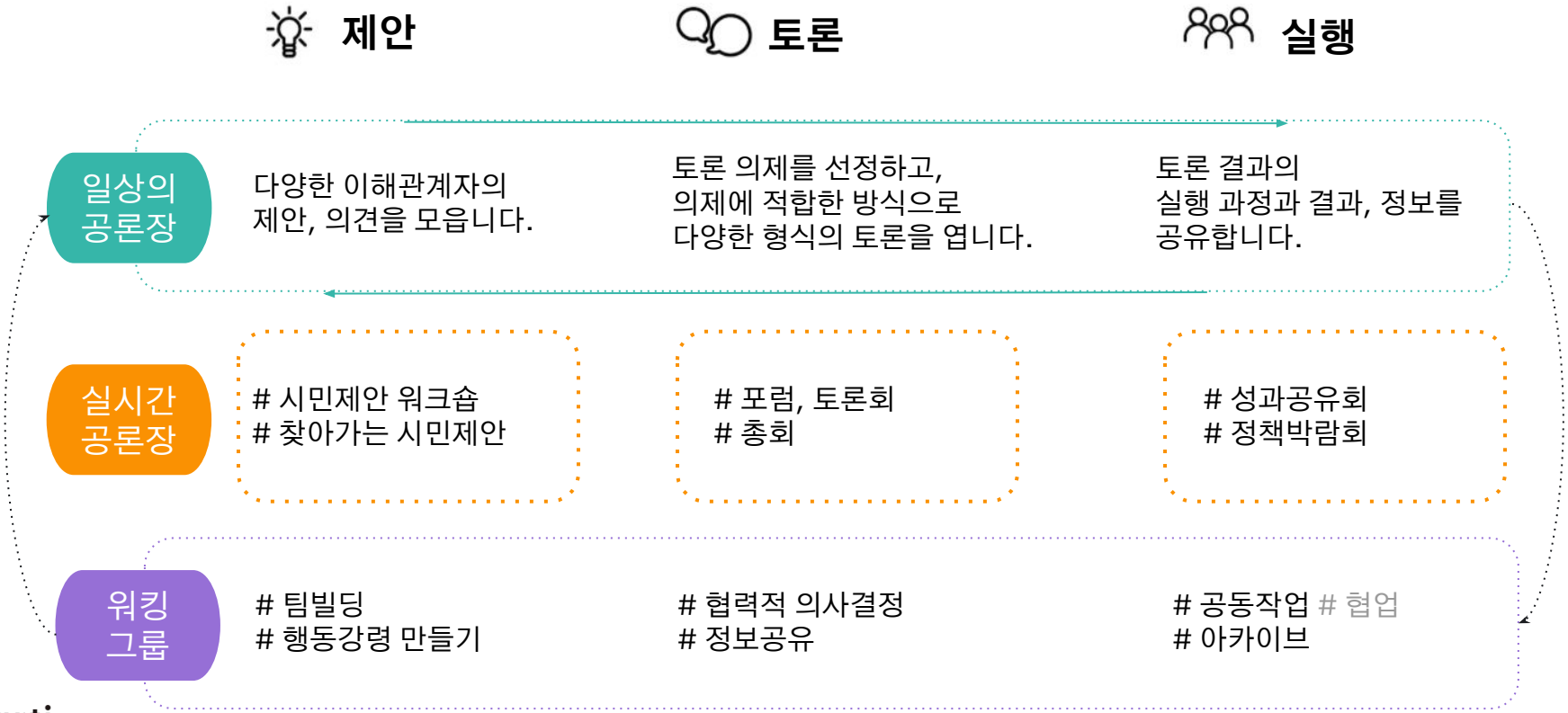






시민협력플랫폼 '데모스X'

제안과 토론, 숙의와 실험을 통한 정책 개발, 대규모 결정과 실행



누구나
쉽게 만드는
일상의 공론장

Democracy for all issues, all people

크고 작은 공론장의 일상화를 통해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Parti M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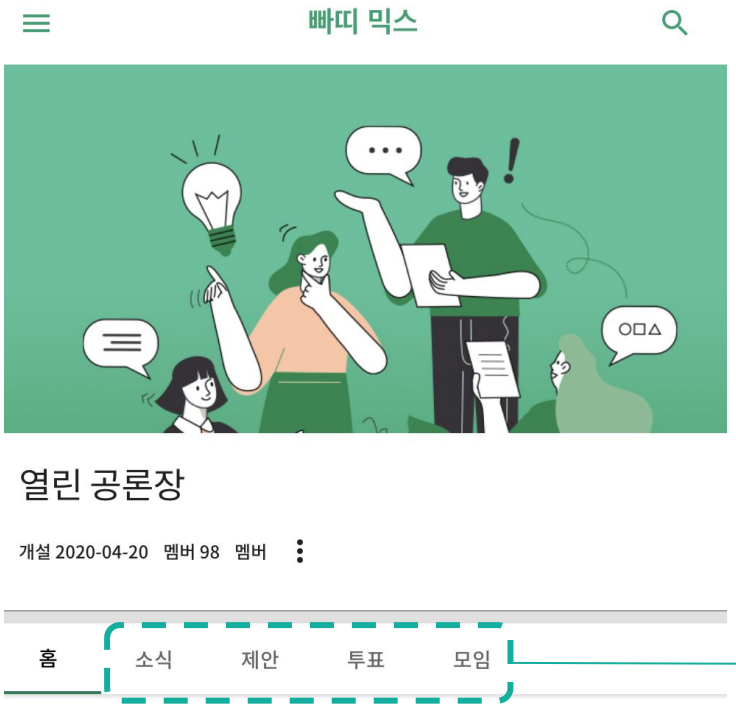
모두의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



플랫폼 '빠띠 믹스'

모두가 일상적으로 쉽게 숙의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공론장 플랫폼 parti.mx



쉬운 공론장
기획자(오거나이저)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의 공론장
참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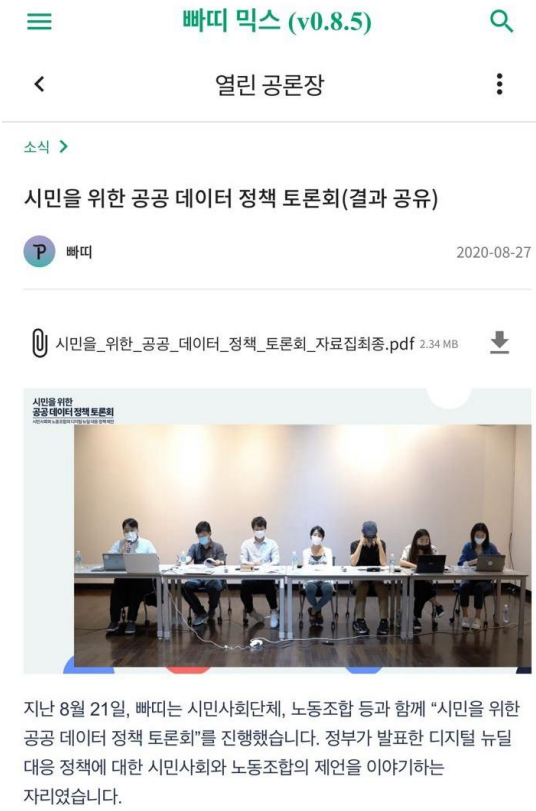
숙의 공론장
운영진(퍼실리테이터)은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하는 공론장을 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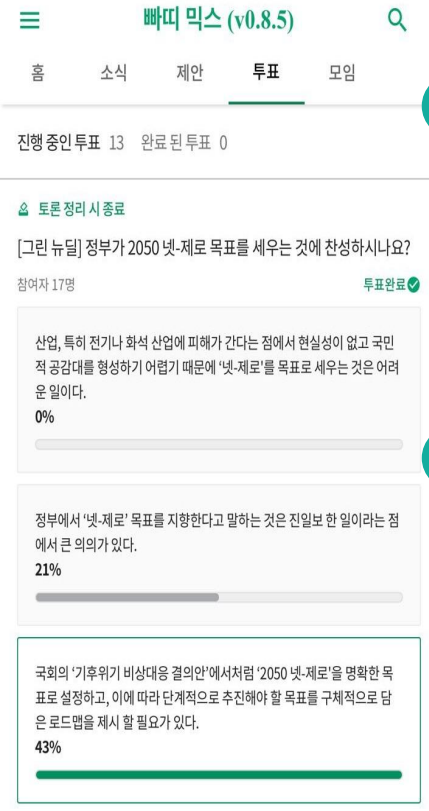
핵심기능

- 그룹의 주요 활동을 공유할 때 : **소식**
- 다양한 아이디어, 의견을 모으고 싶을 때 : **제안**
-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 해야 할 때 : **투표**
- 모임에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참석 신청을 할 때 : **모임**

시민주도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

모두가 일상적으로 쉽게 숙의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공론장 플랫폼 parti.mx





‘열린 공론장’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빠띠 고유의 ‘시민주도 공론장’ 프로젝트
- 정부기관 주도 공론장의 제약을 넘어 시민들의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촉진하여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공론을 형성하고자 함

‘모두의 공론장’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기획과 빠띠의 민주주의 플랫폼을 통한 협업이 만나 열리는 ‘시민주도 공론장’
-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를 의제화, 정책화 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연결

모두를 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시민 주권의 확립

대전환의 시대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세계경제포럼(WEF)의 '거대한 재설정'(Great Reset)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보다 건강하고 공평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상을 재설정할 드문 기회"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다. 슈밥 회장은 **△보다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평등·지속가능성과 같은 공유된 목표를 증진시키는 투자 △건강과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활용**을 '거대한 재설정'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71583.html

기술 수용자에서 자발적 주체인 시민으로

오픈 데이터 Open Data & Open Government

*“**오픈데이터, 오픈API, 시민과학(Open Data Challenge), 오픈도시(City SDK)**의 힘을 이용하는 여러 활동들은 도시 규모에서 적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정의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만들거나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내에서의 지식시스템 확산과 진흥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은 열린 접근(open access), 투명성, 궁극적으로는 오픈거버먼트(open gov.)를 향해 변화하고자 한다.”

(Digital Social Innovation Interim report, 2015)

기술 수용자에서 자발적 주체인 시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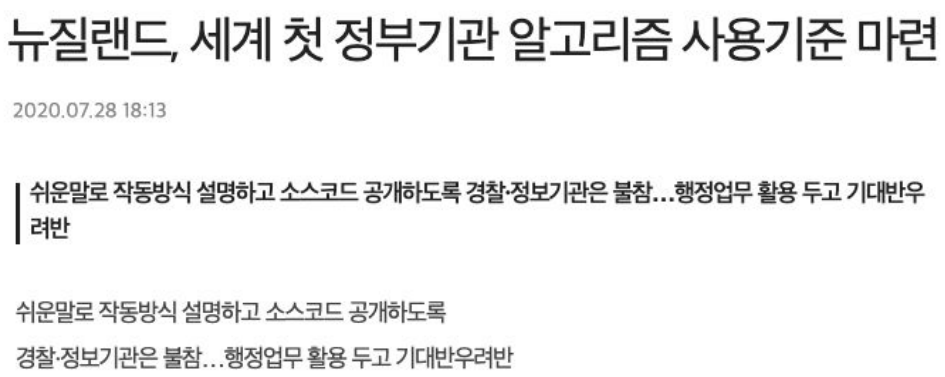
CityOS & CitySDK – 누구나 도시의 자원에 접근하는 오픈 API





디지털 서비스 표준
열린 기술의 원칙
그리고 시민 기술 주권의 원칙

기술 수용자에서 자발적 주체인 시민으로



뉴질랜드, 세계 첫 정부기관 알고리즘 사용기준 마련

2020.07.28 18:13

쉬운말로 작동방식 설명하고 소스코드 공개하도록 경찰·정보기관은 불참…행정업무 활용 두고 기대반우려반

쉬운말로 작동방식 설명하고 소스코드 공개하도록
경찰·정보기관은 불참…행정업무 활용 두고 기대반우려반

뉴질랜드 정부의 알고리즘 사용기준은 국가기관이 의사결정 등에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해당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홈페이지 등에 쉬운 말로 설명해두게 한 것이 골자다.

특히 기준은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설명할 때 소스코드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8547

시민의 데이터(디지털)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해
for People

핵심 수혜자이자 일자리 제공 혹은 포용의 대상

포용성이 중요

국민에 의한
by People

민관협력의 대상이자 주요 문제 해결의 핵심 참여자

개방과 신뢰, 효능감이 중요

국민의
of People

디지털 전환의 핵심 당사자이자 자발적 주체

국민 주권 개념에 기반한 자발적인 환경 마련이 중요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확충, 소외계층 포용을 통한 부작용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반성.

디지털 주권을 정립함으로써 시민이 서비스 수용자에서, 협력의 주체로, 핵심 당사자이자 자발적 주체로서 개념이 확대되는 트렌드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목적, 개방형 기술의 활용과 디지털 공공재의 확대, 시민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민관 협력 확대 및 시민의 자율적인 정책 실험 공간 확대 등등등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반한
국민 삶의 증진과 공공 가치의 실현

(부록) 디지털 경제의 사회적 전환 – 다음 기회에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자산화와 독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공공재화, 이를 위한 공공앱	…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경제를 위해 다루어야 할 무수히 많은 쟁점들…

Parti

더 민주적인 세상
Democracy More and Better, Everyday
parti.coop